



2017 정규 시즌 MVP



골든글러브 투수부문상



카스포인트 대상

# ‘賞남자’



골든 포토상



스포츠서울 올해의 선수상



레전드 야구준 최고의 선수상



2017 한국시리즈 MVP

## 한국시리즈 MVP·정규시즌 MVP·골든글러브 ... 올해 각종 시상식 트로피 ‘씩쓸이’



다시보는 KIA 2017 시즌 <10> 양현종의 해

양현종의, 양현종에 의한, 양현종을 위한 시즌이었다. KIA 타이거즈는 물론 KBO리그의 2017시즌은 양현종을 빼고 언급할 수 없다. 4월 4일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한 홈 개막전에서부터 승리를 거머쥔 양현종은 이후 7연승 행진을 하면서 초반 순위 싸움을 이끌었다. 위기도 있었다. 7연승 이후 5경기에서 양현종은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3패만 남겼다. 경기 내용도 좋지 못했다. 6월 1일 NC 원정에서 3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등 5경기의 평균자책점은 8.28에 이르렀다. 양현종은 “2군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할 생각까지 했다. 육신을 버린 게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위기의 순간을 돌아봤다. 김기태 감독의 믿음 속에 초심으로 새 출발 한 그는 6월 15일 롯데전에서 6경기 만에 승리를 거둔 뒤 다시 연승가도를 달렸다. 7월 13일 NC전 승리는 시즌 13승이자 자신의 개인 통산 100번째 승리였다.

100승 고지 밝아 타이거즈 좌완 최다승 기록 22년만에 토종 선발 20승 ... 한국시리즈 맹활약 양현종의, 양현종에 의한, 양현종을 위한 시즌

김정수 코치가 보유하고 있던 92승을 넘어 타이거즈 좌완 최다승을 기록했던 양현종은 100승 고지까지 밝으며 타이거즈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선동열-이강철-조계현-이대진에 이어 타이거즈 역사상 5번째 100승 투수가 된 그는 KBO리그 통산으로 따져도 28번째 100승 투수가 됐다. 좌완으로는 역대 5번째 100승이었다. “꿈만 같다. 타이거즈 야구만을 보고 자랐는데 타이거즈 최초라는 것에 이름을 올리게 돼서 영광이다. 100승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1승 1승 채우면서 왔다”고 100승 소감을 밝혔던 그의 눈은 다음 목표인 ‘우승’으로 향해있었다. 2009년 우승 당시 조연이었던 선발 막내 양현종은 어느새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어 우승의 순간을 그리고 있었다. 양현종은 헛타와 팀 내 다승왕 경쟁을 하며 KIA의 정규시즌 우승을 견인했다. 차곡차곡 쌓인 양현종 승수는 19. 10월2일 kt와의 원정경기가 열린 수원 위즈 파크 마운드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2위 투산의 집요한 추격 속에 KIA의 1위가 위협받은 이 날, 양

### ■양현종 월별 성적

구분	경기	평균자책점	승	패	이닝	자책점	피안타	피홈런	볼넷	탈삼진
3~4월	5	1.83	5	0	34.1	7	36	0	3	31
5월	5	5.70	2	2	30	19	40	4	5	25
6월	5	4.18	3	1	28	3	34	6	9	19
7월	5	2.78	4	0	32.1	10	30	0	10	31
8월	5	3.48	3	2	31	12	28	4	8	22
9월이상	6	3.11	3	1	37.2	13	41	3	10	30
총합	31	3.44	20	6	193.1	74	209	17	45	158

현종이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에 나선 것이다. 부담 많았던 경기에서 양현종은 7이닝 2실점으로 마지막 등판을 끝내면서 팀의 1위를 지키고, 20승이라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1995년 이상훈에 이어 무려 22년 만에 기록된 토종 선발 20승이었다. 그리고 시즌 최종전에서는 헛타까지 20승을 찍으면서 1985년 삼성 김시진, 김일용의 ‘동반 20승’ 기록이 32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20승으로 정규시즌을 완주한 양현종의 진짜 애스 본능은 한국시리즈에서 제대로 발휘됐다. 불꽃은 투산 타선에 1차전을 내주며 시작한 2017 한국시리즈. 2차전 선발로 나온 양현종의 고독한 싸움이 전개됐다. 팽팽한 0의 행진은 8회초까지 계속됐다. 숨 막히는 점전 속 8회초를 마치고 더아웃으로 향하던 양현종

이 관중석을 향해 손짓한 뒤 양팔을 들어 올렸다. KIA를 응원하는 팬들과 동료들에게 파이팅을 주문한 양현종의 몸짓, 한국시리즈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양현종의 움직임에 관중석 팬들은 질수 없다는 듯 열광적인 응원을 하며 10번 타자로 역할을 했고, KIA는 8회말 공격에서 김주찬의 재치있는 주루로 극적인 득점에 성공했다. 경기 결과는 한국시리즈 사상 첫 1-0 완봉승이었다. 양현종이 시동을 건 한국시리즈의 마침표를 찍은 이도 양현종이었다. ‘V11’에 마지막 1승을 남겨두고 있던 5차전 9회 7-6. 2차전 완봉승 주인공 양현종이 깜짝 마무리로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불넷 이후 수비수 실책이 나오면서 9회 2사 만루까지 몰렸지만, 양현종은 투산 김재호를 포수 파울플라이로 처리하면서 한국시리즈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시리즈 MVP에 등극한 그는 정규시즌 MVP 트로피를 품으며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첫 통합 MVP에 등극했다. 이후 각종 시상식의 트로피를 씹쓸이한 그는 2017시즌을 정리하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마지막 트로피까지 품에 안으면서 전무후무할 트리플 크라운을 완성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메시, 호날두 콧대 꺾었다

### 236번째 엘클라시코 1골 1도움... 호날두 헛발질

세계 클럽 축구 최고의 빅매치로 꼽히는 엘클라시코에서 맞대결을 벌인 리오넬 메시(30·FC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레알 마드리드)가 활약에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메시와 호날두는 24일 레알 마드리드의 안방인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2017-2018 프리메라리가 17라운드 경기에 나란히 선발 출장했다. 메시는 루이스 수아레스와 투톱으로 선발 출격했고, 호날두는 카림 벤제마와 공격 쌍두마차로 나섰다. 메시와 호날두는 지난 8월 프리메라리가 우승팀과 코파 델레이(스페인 국왕컵) 챔피언이 맞붙은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대결 이후 4개월여 만에 그라운드에서 마주했다. 당시에는 호날두가 1차전에서 교체 투입돼 골을 넣고 유니폼 상의를 찢는 과한 세리머니로 퇴장을 당하기도 했어도 소속팀이 우승컵을 차지해 웃을 수 있었다. 그러나 236번째 엘클라시코에서는 달랐다. 원정팀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압도했고, 그 중심에는 메시가 있었다. 경기 초반에는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메시는 전반 후반부터 현란한 드리블과 정교한 패스, 강력한 슈팅으로 팀 공



격을 주도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9분 수아레스의 선제골로 1-0 리드를 잡았고, 후반 18분에는 상대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메시가 키커로 나서 강력한 원발 슈팅으로 오른쪽 골망을 흔들었다. 메시는 이 골로 단일클럽 최다골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바르셀로나 입단 후 526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게르트 뮐러가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기록한 525골을 넘어선 것이다. 메시는 또 자신이 보유한 엘클라시코 최다 골 기록도 25골로 늘렸다. 메시는 2-0으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에는 켈리 골까지 배태했

다. 빠른 드리블로 오른쪽 페널티 지역 골라인까지 침투한 메시는 낮고 빠른 패스를 문전으로 찰라쳤고, 알라이시 비탈이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메시는 1골 1도움 활약으로 3-0 승리를 이끌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바르셀로나는 17경기 연속 무패(14승 3무·승점 45)로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승점 36위), 4위 레알 마드리드(승점 31)를 멀찌감치 따돌려 프리메라리가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엘클라시코 상대전적은 레알이 95승 49무 92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다. 반면 지난 8월 유럽축구연맹(UEFA) 최우수선수, 지난 10월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 지난 8월 발롱도르까지 휩쓴 호날두는 헛발질과 안방 패배에 자존심을 구겼다. 종아리 부상 여파로 엘클라시코 출장이 불투명했던 호날두는 예상을 깨고 선발 출격해 특유의 빠른 스피드로 전반 초반 경기를 주도했다. 하지만 득점과는 인연이 없었다. 전반 11분 왼쪽 측면을 돌파한 토니 크루스가 날카로운 패스를 찰라치자 원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이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는 헛발질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날렸다. 전반 31분에도 강력한 슈팅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등 끝내 바르사 골문을 열지 못했다. /연합뉴스

### 류현진 5선발 평균자책점 4.15

#### 야구 예측시스템 ZiPS

야구 예측시스템 ZiPS(SZymborski Projection System)가 2018년 류현진이 5선발로써 평균자책점 4.1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ZiPS로 예측한 2018년 메이저리그 각 구단 성적을 하나씩 공개하는 미국 팬그래프닷컴은 지난 23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선수들의 내년 성적을 전망했다. ZiPS는 류현진이 내년 22경기(21선발)에서 112.2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4.15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수비와 무관한 평균자책점(FIP)은 4.24, 조정 평균자책점(ERA+)은 98로 예상했다. ERA+에서 평균은 100이다. ZiPS는 류현진이 내년 메이저리그 투수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활약을 펼치리라 예상한 셈이다.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WAR)는 1.3으로 전망했다. 올해 실제로 거둔 성적과 비교하면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예상이다. 류현진은 어깨 부상에서 돌아온 올 시즌 25경기(24선발)에 나와 126.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3.77을 거뒀다. FIP는 4.74, WAR은 0.8이었다. 내년 다저스의 1~4선발은 클레이턴 커쇼(179이닝·WAR 5.8), 리치 힐(115.2이닝·WAR 2.4), 마에다 겐타(150.2이닝·WAR 3.0), 알렉스 우드(144.1이닝·WAR 2.6)로 전망됐다. /연합뉴스